

대한양계협회 소식

전국의 부화장과 육계생산자의 생산조절을 호소함!

생산조절외에는 경기회복될 전망 전혀없어 막연한 기대속에 조절없는 생산지속은 악성불황을 장기화 시킬뿐

—육계병아리생산 계속 증가 추세(도표 2 참조)—

지난 10월12일 오전 11시부터 본회 회의실에서 육계분과 위원회(위원장: 박병희)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위원들은 일부 부화장측의 과도한 병아리 판매활동과 이에 응하는 생산자들에 의해 생산조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입계에서 생산된 병아리가격이 30~70원에 이르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비교적 정확하게 집계되고 있는 본회의 통계자료로서 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불황은 필연적이며 과감한 생산조절없이 장기적인 불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전국의 부화장과 육계생산자들이 자율적인 생산조절을 실천해줄 것을 호소하기로 결의했다.

양계가 여러분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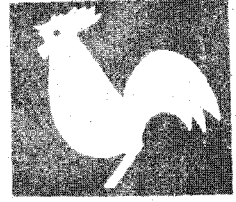
(1)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과 금년 1월의 입추과잉상태는 (매월 약 550만수) 금년초의 육계불황과 직접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금년 7월, 8월 역시 과잉입추되어 (매월 약 550만수) 지난 9월과 현재의 불황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시말해 작년도보다 조금이라도 입추가 증가했던 12월과 1월, 7월, 8월은 모두 불황으로 직접 연결되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또한 비수기에 출하될 이 4개월의 입추물량이 성수기를 겨냥한 금년 6월물량과 동일하게 약 550만수 수준을 나타내므로서 확실히 무리한 입추물량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며 아울러 구정이나 년말, 추석경기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표 1. 육용계 병아리 출하상황

월별	78 년 도		79 년 도		전년도대비
	(77.12)	3,796,992	(78.12)	5,489,790	
1		4,431,894		5,560,894	125%
2		5,229,822		5,092,090	97%
3		6,233,010		5,211,303	84%
4		6,567,782		4,700,639	72%
5		5,996,689		5,154,546	86%
6		5,481,454		5,589,205	102%
7		4,797,709		5,625,401	117%
8		4,504,618		5,489,149	122%



확인이 된 셈이다.

(2) <표2>를 보면

표 2. 육용종계입식상황

월별	(단위:수)		
	78년도	79년도	79/78대비
1	85,136	105,260	124%
2	145,717	150,310	103%
3	198,210	248,400	125%
4	193,180	145,980	76%
5	204,500	120,830	59%
6	125,140	120,140	96%
7	75,960	109,885	145%

①78년도 2월부터 5월까지 과다입식된 육용종계(P.S)에서 생산된 초생추 과잉물량이 작년 12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의 극심한 불황의 원인이 되었음을 알수있다.

② 금년도 2월부터 4월까지도 역시 육용종계가 과잉입식되었으며 특히 2월에는 24만 8천수라는 사상최고의 종계가 입식되었으며 이 3개월간의 과다한 종계에서 생산되는 병아리는 금년 9월경부터 출하되기 시작하므로 과감한 생산조절없이 내년 상반기까지 걸치는 장기적인

악성불황이 명확히 예상된다.

(3) 소비자측면에서 보면

①작년말부터 시작된 양제불황은 국내일반 경기침체시기와 거의 일치하며 현재는 물론 내년까지도 국내 일반경기가 크게 호전되지 못할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증대는 기대할 수가 없으며

② 또한 금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양돈과동은 아직도 회복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장기화될 전망이다에서 닭고기의 소비증가는 참으로 어렵다 하겠다.

이와같은 사유로 인해 전국의 부화장과 육계생산농가의 생산조절을 호소하니 양계인 여러분들은 공동운명의식으로 단결하여 단합된 노력과 과감한 실천으로 업계를 불황에서 구제합시다.

불황때 입추를 증가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은 중대한 오산이 될 것이며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불황을 끊임없이 지속시키는 어리석음이 될 것이다.

본회, 재무부와 계란수입억제에 관한 업무 회의

— 수입저지를 강력히 촉구 —

계란수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10월30일 현재농수산부는 재무부등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며 본회는 지난 11월 1일 재무부 담당관과 이 문제를 협의하면서 ① 최근의 국내 양계업계의 경영수

지 악화실태 ② 계란의 국내자급능력충분 ③ 계란수입에 따른 양계농민의 불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계란수입이 저지되도록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대한양계협회 소식

계란의 수입자동승인품목

지정 시정 건의

—농수산부, 대책강구 혁신—

본회는 앞으로도 계란류수입이 계속될 경우 국내양계업계에 미치는 막대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상공부에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년 2회 공고하는 수출입기별 공고에서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계란을 80년도 부터는 수입제한승인품목으로 시정, 고시해 주도록 관계당국에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① 모식품업체에서 난분 40톤을 수입키로 계약하고 지난 9월경 10톤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② 현재 서울·경기지역의 식품공업용 계란총소모량은 서울지역 계란소비량의 약 20%에 해당되며 만약 모든 식품업체에서 수입계란을 사용할 경우 채란농가는 절대적인 난관에 부딪힐 것임

③ 매년 상승세를 보이던 계란가격이 금년들어 오히려 약 4%가 하락하여 예년에 없는 불황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이와같은 난분수입은 양계농가에 커다란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

④ 80년도부터는 계란이 수입제한승인품목으로 지정되어 계란수입이 중지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니 선처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본회는 산란노계 비축및 계란수매방안 강구를 건의했다.

한편 농수산부는 10월 24일자 회신공문에서 계란수입억제를 위하여 80년도 수출입 기별공고에 반영토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임을 본회에 회신해 왔다.

본회, 식품제빵업계에

계란수입 중지를 촉구

—수입업체제품 불매운동 가능성경고—

본회는 혹시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를 식품가공업체 계란류수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7일, 대규모 7개 식품및 제빵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계란수입자제를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① 모식품업체에서 난분을 도입하므로서 전국의 양계생산자가 이를 성토하고 있으며 전국의 양계농가가 단결하여 난분을 수입한 업체의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할 움직임이 있음.

② 매년 상승세를 지속하던 계란시세는 금년에는 오히려 약 4%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양계농가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식품업체가 구입하는데 가격과 물량면에서 당분간 문제가 없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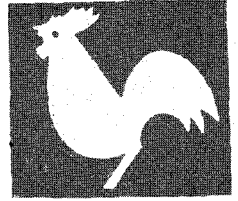
③ 혹시 귀사(貴社)가 계란수입계획을 추진중이라면 이를 재고, 취소하는 자제력을 발휘함으로써 식품및 양계업계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 질수 있을 것임

금년도 육용종계 입식누계

작년대비 4% 증가

—계속적인 입란·입추 조절을—

지난 20일 농수산부에서 개최된 각도축정과장 회의에서는 양계산물생산조절을 위해 강력히 대책을 강구토록하고 양축가의 계속적인 입란입추 조절을 촉구하는 동시에 무허가 부화장 강력단속, 종계장 부화장의 종란이동상황, 입추상황을 정확히 추적조사키로 했다. 또한 생산조절을 위



해 각시군 및 양계협회에 보고하는 초생추 생산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여 미보고 또는 불성실 농가를 집중단속강화하기로 하는 등 양계산물 생산조절을 위한 적극 시책을 펴 나가기로 했다. 본회가 집계한 8월 中 P.S분양실적을 보면 산란계는 8월말까지의 누계가 35만수, 육계는 112만수로 육계의 경우 작년 동기에 대하여 104%의 입식율을 나타내고 있다. 금년 2, 3, 4월에 집중 입추된 육계종계가 산란을 개시하면서 부터 육용 c.c의 생산 잠재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9월말 후반기 이후의 분양수수가 줄어들었으나 금년도에는 육계종계의 분양실적이 계속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전반기 경기가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의 이 불황은 어느 누구의 힘으로

도 타결 될 수 없으며 오로지 생산자의 단합된 의지만이 타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에는 한번 맞히겠지 하는 투기심리와 막연한 기대속의 입추증대는 속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제1회 육용종계 검정위원회 개최

— 10월 19일, 본회 회의실에서 —

지난10월 12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육용종계 경제능력 검정위원회에서는 종계검정을 위한 시안을 확정검정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엔 출품된 육용종계를 보면 국내 우수종계종이 모두 출품되고 있는데 친호부화장의 마니커, 한협종계장의 코브-500, 신기농장의 하바드, 삼일농장의 미트닉, 한국카길(주)의 스타브로 등이다. 이번 실시되는 육용종계 경제능력 검정은 종계에서 실용계에 이르는 계대검정을 실시하므로써 닭 경제능력 검정에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79년도 월별PS입식 상황

월별	산란종계			육용종계		
	'78	'79	79/78대비	'78	'79	79/78대비
1	81,600	42,630	52%	85,136	115,260	124%
2	57,800	43,810	76	145,717	150,310	103
3	73,438	43,800	60	198,210	248,400	125
4	76,270	50,050	66	193,180	145,980	76
5	124,611	40,475	32	204,500	120,830	59
6	101,885	54,717	54	125,140	120,140	96
7	66,615	28,460	43	75,960	109,885	145
8	15,650	43,700	279	49,530	114,849	242
9	6,650			43,930		
10	14,110			42,190		
11	18,360			58,850		
12	23,610			58,240		
계	660,599			280,580		
8월말계	597,869	347,642	58	1,077,373	1,115,654	104

종계수급조절위원회 개최

— 10월19일, 본회 회의실 —

본회에서는 10월 19일 오후 3시 본회 회의실에서 종계수급조절 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수산부의 종계수입자율조절지시에 따른 금년도 종계수입에 대한 문제를 의논하였다. 입계에 극심한 불황이 예상되고 종계가 과다입추된 현지점에서 좋은 내용의 의견이 교환 되었으며 세울인하 문제도 함께 거론 되었다. 금년도 전반기 종계입추상황을 보면 작년도와 거의

대한양계협회 소식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후반기에는 작년도와 달리 종계가 지속적으로 입추될 것이 예상되어 경기 부양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회, 서정쇄신 자율정화 단합대회개최

서정쇄신이 일반사회로 더욱 심화 확산됨에 따라 우리 양계업계도 국민총화의 원동력이 될 자율정화 운동의 일환으로 10월12일 오후 2시부터 본회 회의실에서 이사및 분과위원, 회원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정쇄신 자율정화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 의 문

우리 양계인은 국민총화와 총력안보의 원동력이 되는 서정쇄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새마을 정신에 입각하여 양계업계의 제반 잔존 부조리 제거에 앞장서며 양계업계의 정화운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양계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생산조절에 앞장선다.
2. 우리는 상호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하여 법을 준수하고 모든 통계자료를 정확히 기록 유지한다.
3. 우리는 제동이 우수한 초생추 만을 공급하며 불량추 생산근절에 앞장선다.
4. 우리는 일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통 개선에 앞장서며, 소비절약 및 물자절약에 적극 호응하여 근검, 절약, 저축의 삼위일체를 생활 신조로 삼는다.
5. 우리는 양계업계의 자율정화를 위하여 공생, 공영, 공존의 길을 모색하며 제반 부조리 제거에 앞장서서 서정쇄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것 과도 타협하지 않는다.

축산이라면 무엇이든
협조해 드립니다.

삼송가축약품상사

축산기구

- 사료통 · 물통
- 케이지
- 연속주사기
- 계란선별기
- 데비커
- 기타 기구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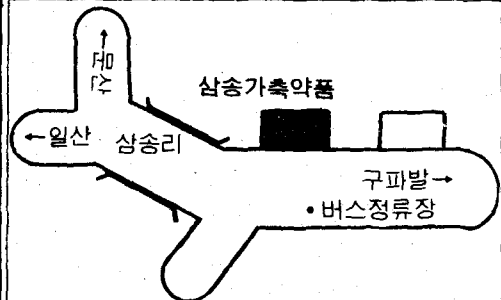
축산약품

- 소독제
- 예방제
- 치료제
- 기타 일체

축산물 시세속보

- 육계 - 하이브로 · 세미
- 노계 - 백색 · 유색.

전화 (389) 9658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동산리 27-31
전화 : 389-9658 대표 이 소 진